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 10월

Vol. 221 20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사랑의 편지

21세기 경천애인 (敬天愛人)

우리나라 88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에 폴란드의 한 중년의 직장인이 사고로 중태에 빠지게 된다. 안 그르제부스키라는 사람이다. 이분은 46세가 되던 해에 폴란드의 철도회사 직원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머리를 다쳐 코마 상태에 빠졌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19년이 지난 65세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얀 그르제부스키가 눈을 떠보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렇지 않겠는가? 의식을 잃기 전 폴란드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19년이 지났을 때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의 세상이 되었다.

얀 그르제부스키는 말한다. "내가 19년 전에는 상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생필품 몇 가지와 홍차뿐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 국가가 조금씩 배급해 주었고, 석유를 사려면 긴 줄로 늘어서서 한 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중전화박스도 긴 줄을 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백화점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자유롭게 통화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현대기술 문명의 발달로 과학기술은 날마다 진보했는지 몰라도, 윤리와 도덕, 인간성은 어떠할까? 우리는 감히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22:38,39. 요약). 이는 유가의 경천애인(敬天愛人)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21세기 경천애인 정신으로 돌아가자.

글 김수정 사모
(광고후원 사암교회 사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131-005-937566 (신협)
172242-51-085114 (농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성칠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2017년 9월 14일(목) 오후1시 강원도청앞 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헌반대 국민대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헌반대 국민대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강원기독교총연합회의 18개 시군기독교연합회와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분연히 일어서다

9월 14일(목) 춘천에서는 강원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있었다. 그에 대해 강원도청 앞에서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헌반대 국민대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어 거리행진이 강원도청에서부터 중앙로와 팔호광장을 거쳐 한림대학교까지 있었다.

국민대회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정반대 강원운동총본부 주최로 강원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20개의 교계단체와 사문언, 건사연을 비롯하여 10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12시 반에 시작된 국민대회는 약 130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건사연 한00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청년응원문화연대 리오팀의 깃발춤과 댄스공연, 그리고 순복음춘천교회의 난타 공연 등 식전행사가 있었고, 이어 강원도청 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하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서 및 개최 취지 발표, 각계 대표 발언 후, 거리행진으로 이어졌다

성명서는 현행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변경하여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반대, 현행헌법 제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등"을 집어넣으려는 시도 반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망명권을 신설하여 과격 무슬림 유입을 가능케 하려는 개헌 반대,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 반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성명서 낭독 후에는 최봉현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대회준비위원장의 개최취지 발표와 각계 대표들이 나와서 상기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성명서 발표 후 국민대회 측은 강원도청에서 중앙로와 팔호광장을 거쳐 한림대학교까지 거리행진을 실시하였다. 길거리 시민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문제점도 알리고, 개헌반대 구호도 외치며





▲ 강원도청에서부터 중앙로, 팔호광장을 거쳐 한림대학교까지 거리행진

한림대에 도착한 후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강원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질의 응답 시간은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되었다

강원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이어서 최교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의 기조발제가 있었고 미리 준비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과 자유토

… 6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준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관형 _ 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070.4300.8731

특집 - 2017 춘천성시선교대회 지면 중계

45주년 2017 춘천성시선교대회 "빛을 발하라"

9월 17일(주일저녁)부터 23일(토)까지, 석사감리교회에서 열려



▲ 2017 춘천성시선교대회 저녁집회 모습



▲ 강사 최홍준 목사
(국제목양사역원장,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전 이사장, 호산나 교회)

<저녁집회 스케치>
나의 가정과 교회부터 성시화

첫째 날, 9월 17일(주일)

순복음춘천교회 연합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로 2017년 춘천성시선교대회의 첫 문을 열었다.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수석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 김종렬 장로(홀리클럽회장, 신성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정선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 제자들침례교회)의 '에베소서 1:20-23'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석사감리교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후,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감리교회)의 인사말씀 및 강사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주강사이신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장,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전 이사장, 호산나교회)의 "나의 가정과 교회부터 성시화"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최홍준 목사는 부산성시화 사역을 소개했는데, 먼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대형교회들이 나서서 쌀과 반찬을 제공하여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며, "주라! 그리하면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성시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 "차세대 진도운동을 위해 꽤찮은 선물을 준비하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돕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단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형 교회의 후원으로 전쟁사령부를 만들어 전향자들을 돕는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성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도는 계속 훈련을 하면서, 집회를 해마다 두 번씩(상반기는 4일간, 하반기는 1일) 열고 있다. 주님께서 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심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병철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주향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있었고, 정덕헌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총무, 푸른초장침례교회)의 헌금기도 후, 성시무용단의 헌금특송이 있었다.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광고 후, 김창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직전이사장, 온누리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차후 춘천기독교연합회-춘기연, 춘천목회자연합회-춘목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춘성본, 춘천홀리클럽-홀리클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춘장연 으로 표기됩니다.)

둘째 날, 9월 18일(월)

주향장로교회와 에사랑침례교회 연합찬양단의 파워풀한 찬양과 경배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었다. 신재원 목사(춘기연 수석부회장, 세춘천성결교회)의 사회, 남준섭 장로(춘장연, 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태균 목사(춘기연 서기, 주님의감리교회)의 '시편103:1-5' 성경봉독이 있었다. 성시합창단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이어 주강사이신 최홍준 목사의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제목의 설교가 이어졌다. 최홍준 목사는 "흑암의 나라에서 속량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흑암의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체질로 살아야 한다." "성령의 체질로 바뀐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심처럼, 감사와 찬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였다. 이어 최상도 목사(춘기연 총무, 사암성결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있었고, 신성균 목사(춘성본 이사, 순복음열린교회)의 헌금기도 후,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교사들이 헌금특송을 하였다. 조영춘 사무총장의 광고 후 박상철 목사(춘기연 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둘째 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셋째 날, 9월 19일(화)

에수전도단 김주현 간사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과 경배가 드려졌으며, 최상도 목사(춘기연 총무, 사암성결교회)의 사회, 김양수 안수집사(춘천직장선교연합회 성시화추진위원장, 평성성결교회)의 대표기도, 이정철집사(춘직연 부회장, 성광장로교회)의 '요한일서2:9-11'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최홍준 목사의 "빛의 자녀의 증기를 보여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최홍준 목사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며, "내가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다. 내가 풀어야 나와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며 간증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심재훈 목사(스프링윅스 사목, 한울섬김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있었고, 홍순신 권사(춘성본 회계, 평화동산감리교회)의 헌금기도 후, 남성중창단인 아멘 코러스(순복음춘천교회)의 헌금특송이 있었다. 조영춘 사무총장의 광고 후, 박인관 목사(춘성본 이사장, 광염교회)의 축도로 셋째 날 집회를 마쳤다.

넷째 날, 9월 20일(수)

석사감리교회 찬양단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손학균 목사(춘목연 회장, 석사감리교회)의 사회, 김기기 장로(강원감리동부연회 회장, 석사감리교회)의 대표기도, 김용기 목사(춘목연 서기, 푸른샘감리교회)의 '잠언 29장 18절'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찬양이 있었고, 최홍준 목사의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최홍준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꿈을 찾고 기도제목을 얻으면 영이 살아난다." 또,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라.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복음의 택배기사가 되어 충성하자."고 전했다. 이어 김원중 목사(춘천장로교연합회 회장, 춘천우리장로교회)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있었고, 최상도 목사(춘기연 총무, 사암성결교회)의 헌금기도 후, 윤영이 권사와 김은경 선생(소양제일성결교회)의 헌금특송이 있었다. 조영춘 사무총장의 광고 후, 주강사이신 최홍준 목사의 축도로 저녁집회가 마무리되었다.

집회 마지막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특별히 박인관 이사장님의 주도로 만인일천후원자 모집의 취지를 설명한 후,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지의 말씀처럼 춘천시내 만명의 성도가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춘천성시화의 꿈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날에 160여분의 성도분들이 헌신을 작정하였다. 최홍준 목사님의 간증처럼 성시화운동에 헌신했던 호산나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후원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작정하신 춘천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한다.

취재 · 사진 / 이은정 기자

<사모세미나> 9월 18일 월요일
사모와 정신건강



▲ 강사 이영애 사모 (가족관계연구소, 신성회 대표)

45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대회 오전 첫 집회로 시작한 사모세미나는 작년과 같이 월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는 사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었습니다. 교회 연합과 도시 복음화를 외치는 목회자 중심의 성시선교대회가 기대에 못 미치는 참석의 아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참석자들의 반응은 사모모임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자리를 위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이영애교수는 사모로서의 애환과 슬픔, 회복과 치유를 통한 사모의 역할과 사명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였습니다. 남편 정동섭교수와의 결혼생활 속에 겪었던 다양한 자신의 부부관계, 가족생활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도록 애써야겠다"고 말씀하신 사모님!
사모님의 고백이 실제가 되어 행복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길 기대해봅니다 ·

목회자 남편의 진정한 동역자로 자기 위치 세우기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남자 이해,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자기통찰의 중요한 과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며 시도할 수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남편을 바로 아는 사모의 역할과 사명은 혼자 가슴앓이 하는 슬픈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도 되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
"나를 더 사랑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서로 부둥켜안고 등을 두드리주며 함께 울고 웃는 이유 있는 시간을 못 드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목마른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 흔한 냉수 같은 사람 하나 찾지 못해 혼자 울고, 참고 견디며 사는 사모님들에게는 깊은 배속까지 확 뚫리게 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목사님 도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았다."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해주심을 감사하다"는 사모님까지 계셨던 아주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오셔도 대접하시겠다고 귀한 식사를 준비해주신 이수형 목사님, 친히 오셔서 시작을 열어주신 박인관 목사님과 사모세미나를 계속하는 자리가 준비되면 자원봉사로 강의해주시겠다는 이영애교수님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목사님들께서 홍보위원이 되셔서 내 아내 사모 보내기운동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시화 사모모임을 조직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진행 중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글/ 이연희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여성분과 , 아미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
9월 19일 화요일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 발제 구영철 교수 (감리교 신학대)
토론자 : 엄기홍 목사, 이승구 목사 / 진행 : 손학균 목사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95조의 논제를 대학 교회 정문에 게시했다. 이 95개 조항은 '면죄부'를 포함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십자군 전쟁 이후 '아비뇽 유수'로 인한 교황권의 몰락과 국가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일은 여전히 강력한 교황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교황청은 각종 세금성 헌금을 독일에 강요하였다. 당시 독일은 선제후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1519년 6월 28일 선제후 회의에서 카를5세가 황제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독일계 스페인 사람이었다. 카를5세는 선제후 회의에서 황제로 선출되기 위해 독일의 금융 거부인 푸거 가문과 벨저 가문에게서 막대한 선거자금을 빌려와 선제후들에게 뇌물로 건넸다. 바로 이 과정에서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브레히트는 성직매매를 통해 대주교가 되어 카를5세 당선에 힘을 보탰던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황제로 등극한 카를5세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를 앞세워 '면죄부'를 비롯한 '초입세', '십자군 전쟁세' 등 각종 종교세와 공물 및 교황청을 위한 십일조를 부과하였다. 결국 95개 조항의 논쟁 문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횡을 비판하였던 마틴 루터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를 앞세운 카를5세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자 이 일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되었다.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논박'에 이어,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렸던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마틴 루터는 콘스탄틴 공의회가 얀 후스를 잘못 정죄하였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뿐이라고 주장(엡1:22~23)하였다. 결국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5세는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열고 루터를 소환하였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황제 카를5세 앞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추방령을 받았지만 작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의 보호 하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면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며 최종적인 교회개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루터가 처음 95개조의 논제를 게시할 때, 그의 의도 속에 종교개혁이나 사회개혁의 어떤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자신의 양심과 지성에 충실했던 신학자요 주님 앞에 더 신실하기를 소망한 사제로서 95개조의 논제를 제기했을 뿐이었다. 타락과 부패가 도를 넘어선 가톨릭교회는 이 일로 인해 크게 흔들렸고 가톨릭교회와 결탁되어 있었던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카를5세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선제후들과 농민들은 루터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때 루터의 지지자들 가운데 토마스 뮌처와 칼슈타트 같은 이들이 나타나 루터의 복음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농민혁명으로 이끌어 갔다. 결국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고 있었던 1521년부터 1522년까지 10개월 사이에 과격한 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농민혁명, 민중항쟁으로 적어도 1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일로 인해 루터는 지지자들을 잃게 되었고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 고백서'가 황제 카를5세에 의해 거절된 후, 1531년 2월 27일 '슈말칼덴 동맹'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탄압으로부터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군사적 행동을 취함으로 카를5세에게 대항하였고, 이듬해인 1532년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났다. 슈말칼덴 동맹은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프랑스의 원조에 힘입어 세력을 회복한 후, 1555년 가톨릭교회와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517년 비텐베르크의 95개 논제에서부터 시작된 마틴 루터의 정신은 1555년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였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마주 선 루터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양심' 때문이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저항정신!' 신앙 양심에 기초한 명백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이다.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95개 논제를 제시한 후 1년 뒤 1518년 95개 논제 강해를 통해서 루터는 "교회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교회, 교리적 신앙에만 머문다면, 그래서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 저항정신을 상실하게 된다면, 또 다시 루터와 같은 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 손학균 목사(춘천석사감리교회)

<목양장로사역세미나> 9월 20일 (수)
목사와 장로의 본질은 무엇인가?



▲ 강사 최홍준 목사

할렐루야! 금번 성시선교대회 기간 중 목양 장로 세미나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교회만 잘 섬기고 장로의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믿음생활을 되돌아보게 한 좋은 기회였다. 지면을 통해서라도 이 목양 장로 세미나를 읽고 우리 장로들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목양 장로 제도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시대 출애굽이전 장자를 죽이는 재앙 전에 장로가 등장한다.(출12:21-23) 이 당시에는 봉반장 역할을 했다. 그 후 광야시대에 70명의 장로가 모세와 동역하기 위해 세워졌고,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부어주심(민11:16-17)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목양의 효시가 된다.

그 후, 종교개혁 당시 루터에 의해 목양 장로 제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500년이 흐르면서 비 본질에 세워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교단 헌법에도 목양 장로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목양 장로의 본질인 목양사역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성도) 즉 양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장로가 행정만 하면 안 된다. 선한목자의 자리에 서서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양들을 배부르고 건강하게 먹고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이리와 맹수로부터 지켜야 한다.(이단, 실족, 세상) 셋째, 병충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목자가 자상하게 돌볼 때, 맹수와 병충해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세 번의 물음으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은 끝까지 양을 돌보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 후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자가 되었다.

목양을 나의 분복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소중히 하자. 진리와 비 진리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또 끊임없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한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하고 모범과 본이 되어야 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의 의미를 음미해보면서 우리 장로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충전의 도약 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김종열 장로(홀리클럽 회장, 신성감리교회)

<영상설교세미나> 9월 21일 목요일
다음세대를 위한 도구, 영상설교



▲ 강사 하정완 목사 (꿈이있는 교회)

다음세대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 나 또한 20대, 30대 때에는 소위 젊은이들에게 잘 먹히는(?) 설교자였다. 꽤 여기저기서 불러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설교했다. 하지만 50대 중반을 향해가는 지금은 나 스스로 물음표에 가깝다. 고3인 막내딸이 어느 날 나에게 조언하기를 "아빠, 아빠 설교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아무도 안 들어!" 한다. 그러고 보니 젊은 교회전도사가 어쩌다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청소년들의 눈빛이 반짝 반짝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설교하면 청소년들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고민이다. 젊은 전도사와 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젊은 전도사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영상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너무 고지식하게 '성경적' 이라는 이유로 활자 자체에 묶인 설교를 많이 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조금은 숨통을 트이게끔 한 것이 하정완 목사와의 만남이다. 지난 여름, 중세 수도사의 전통을 잇는 경건한? 영성 수련회에서 하 목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큰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금 이번 성시화선교대회를 통해 더 큰 영감을 얻는다. 시인, 작곡가, 영화 제작자 등 하정완 목사의 이름 앞에 붙는 여러 수식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영화설교가'다. 영화 설교란 5분 안팎으로 편집된 영화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 방식. 하 목사는 "영화 설교는 교회가 세상과 만나기 위해 접촉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했다. 특히 아랫세대들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 하 목사의 영화 설교는 벌써 600편이 넘어섰다.
하 목사는 자신이 영화설교를 하게 되는 계기를 이렇게 말한다. "2007년 무렵이었어요. 교회 한 여성 교우가 전화를 해왔어요. '뱃속 아기의 심장이 80% 이상 혹으로 가득한데, 의사는 걱정하고 친정엄마는 낙태를 권한다.'며 어찌 할지 묻더군요. 저는 '영화 '하루'로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었지요." 전화 받기 3년 전 쯤 예배 때 이 영화 장면을 짧게 보여주며 하루라도 새 생명을 얻어 살도록 십자가 위 강도에게 복음을 선포한 예수의 마음에 관해 설교했었다고 한다. 전화를 걸어온 여성 교우는 하 목사의 말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순종하여 태어난 아기는 쑥쑥 자랐다. 백일잔치, 돌잔치를 잘 지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건강하게 다닐 정도로 잘 자랐다.
하 목사가 영화설교를 시작한지는 벌써 20년 가까이가 되었다. 서울 「꿈이있는 교회」를 섬기는 하 목사는 교인 7000여 명 중에 영화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교우들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영화와 문화를 통로로 신앙의 걸음마를 떼면 제자훈련을 통해 굳건한 신앙인으로 길러내려 노력한다. 하목사의 소망은 청년들이 원래 영화처럼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창조됐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도구, 영화설교! 강력 추천한다.

글/ 최상도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사암교회)

<전도세미나> 9월 22일 금요일
일요일엔 뭐하세요?

어린 아이의 탄생은 가정을 더욱 활기차게 하고 기쁨의 웃음꽃을 피우게 한다. 아이의 탄생이 없는 가정을 상상해 보라 고요와 적막을 흐르는 가정이 될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영적 탄생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다.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잃고 세상을 향해 나갈 동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춘천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길은 전도의 기쁨,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의 회복은 성시화운동의 어떤 전략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2017년 춘천성시대회가 열리는 전도세미나는 성시주간 금요일(9. 22)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시간이 다가오자 전도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의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50여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본인의 사회로 시작된 전도세미나는 김용배 장로의 기도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 강사이신 굿파트너즈 대표이며, 안산동산교회 장로이신 정재준 장로가 소개되었다.

정재준 장로는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장의 멍에를 끼어 지게 되었다. 독학으로 중고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고, 독학으로 네 번의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35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이십 년이 넘도록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가지고 살았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다. 그러다 8년 전부터 전도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으로 전도하게 된 실제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도한다. 마4:19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로



▲ 강사 정재준 장로 (굿파트너즈 대표, 안산동산교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요4:35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낚을 영혼들을 잘 정탐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가 벽에 부딪치는 경우를 보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보다는 내가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다보니 대부분 거절당할 때가 많다.

이런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며 기도하던 중에 새로운 대화법을 발견하게 된다. 잠18:21은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한다. 마 7:12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한다. 정장로는 여기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황금대화법을 발견하게 된다. 1)위로하라. 현대인들은 위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2)칭찬하라. 칭찬은 인정해 주는 싸인이다. 칭찬은 상대방을 춤추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3)격려하라. 격려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관계를 맺는데 신뢰와 믿음을 더해준다. 4)질문하라. 이웃들은 우리가 물어봐주기를 원한다. 질문만 잘해도 절반이 성공이다. 5)경청하라.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임금님 앞에 내시가 듣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들어야 한다.

이왕 전도할 바에야 가정을 통째로 전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전가족 초청전도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녀교육에 있다. 그런 면에서 자녀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좋은 연결고리이다. 그래서 맺어진 복음적 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가족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심기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VIP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정장로에게 주신 질문법 중의 하나는 "일요일엔 뭐하세요?"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화하며 이웃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지므로 기록이 중요하다. 머리를 믿지 말고 기록한 손을 믿어한다는 말이 있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회복된다. 습관처럼 본능처럼 기록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록한다. 가족들의 이름, 특히 자녀들에 관련한 사항들을 수시로 들어다보며 암송하듯 되새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한 이름들을 날날이 불러가며 새벽에 기도하였다. 전도는 영적전쟁이다. 정장로는 대신자를 품고 쉬 두르지 않고 10개월 동안 기도하며 10번을 섬긴다. 그리고 전도자는 개인간증을 준비해 두었다가 자연스런 때에 간증을 한다. 정장로는 2010년 60여 가정을 놓고 기도하던 중 12월 19일 전도결산잔치를 하기로 작정하여 150명중 140명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도분과위원장이신 홍요셉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음으로 성도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각 교회로 흩어졌다. 금번 전도세미나를 통해 춘천 땅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기름부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블레싱춘천> 9월 22일 금요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블레싱 춘천(Blessing ChunCheon)은 잠언11:11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함께 모여서 이 도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춘천성시선교대회가 있을 때에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2017년 성시선교대회 블레싱 춘천에서는 석사감리교회에서 모여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단지 '한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의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찬양인도는 선교단체연합 찬양팀이 섰고 인도는 김주현간사(YWAM)이 했습니다. CCC의 장소영간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월드비전 박인필팀장이 성경 봉독을, 선교단체 간사들이 마라나타를 특송으로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말씀 선포는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영길목사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엡6:12)"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갖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 나누어주었습니다. 김목사는 동성애 옹호 논리에 무너진 서구국가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수많은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벌여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헌법기관화 하려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 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것이란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격상시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여 국민의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교회는 상황을 인식하는데 무지해서는 안 되며, '차별과 인권' 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동성애 독재시대를 열겠다는 것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던져주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통해 인식해서 그런지 이어지는 통성기도 시간에는 모두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정착화를 위해서" 박동인 간사(CCC)가, "춘천의 400여 교회와 선교단체의 부흥을 위해서" 김주현 간사(예수전도단)가, "차세대 부흥과 성경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김마태 전도사(어린이전도협회 대표간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기도는 양현기 헬퍼(에스컴)가, 헌금특송으로는 예수전도단의 이아름 간사가 해주었고, 성시선교대회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총장 조영춘목사가 광고해주었습니다. 블레싱 춘천은 이병철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전 기독교연합회장이었던 차덕수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 이병철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주향교회)

<춘천성시족구대회> 9월 23일 토요일





춘천성시족구대회가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토)에 오전9시부터 공지천 족구장에서 열렸다. 목회자 족구동아리인 춘목회(김유식 목사) 주관으로 열렸는데, 이 날 교회팀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쉬웠다. 참여한 교회팀은 광염교회, 춘천교회, 주향교회등 3개팀이었다. 일반동호회는 와이신협과 대동운수를 비롯해 8개 팀이 참여해 총11개팀이 경기하였다. 참여한 11개 팀은 시로 응원을 하며 맛진 경기를 펼쳤다. 1등은 춘목회, 2등은 주향교회, 3등은 와이신협과 대동운수가 차지했다. **취재 · 사진/ 편집부**

··· 1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론이 이어졌다.

4시 10분부터 5시 반까지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우선 세 아이의 엄마라 밝힌 한 시민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굳이 '생물학적 성'이라고 말하면서, 젠더 즉 '사회적 성'은 예를 들어 염색체가 XY로 태어난 남자이고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받았더라도 자신이 여자라고 느끼면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으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벌써 30여 가지의 젠더를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영문표기가 Ministry of Women & Family 가 아니고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있었다. 자신을 한림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의사인 자신도 성평등이 여성의 권익을 위한다니 좋은 뜻으로 알았다가 젠더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알겠는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헌안에 넣은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사회문화연구소 소속 한 시민은 이번 개헌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 프랑스 68혁명처럼 가정파괴, 사회파괴로 이끄는 네오막시즘으로 의심되는데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에서 개헌까지 밀어 부친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예비역대령으로 밝힌 한 시민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유지하려면 매년 40만에서 50만의 군인이 필요한데 동성애가 창궐하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현하였고,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은폐하는 언론보도준칙도 만들고 학교에서도 이미 동성애 옹호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 중 강원대 법대 김학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필요 없는 기관이 일년 예산 400-500억을 쓸 정도로 비대해져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주장을 하였다. 양구에서 왔다는 한 목회자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만 중시하고 다수의 행복지킴권은 무시하는 개헌 시도는 잘못 된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춘천 국민대회 측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적시한 개헌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하면서 향후 추이에 따라 일인시위, 대규모 집회, 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을 접촉하여 설명 및 압박 등 시민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글/기정희 선교사(베드로병원 원장)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정반대 국민대회 개최 취지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영남(부산), 호남(광주), 충청(대전)에 이어 오늘(9/14)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헌법 개헌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된 18개 시군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홀리클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와 사회문화연구소를 비롯한 10개의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대회 준비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이와같이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정반대 국민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의 시도들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첫째,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이라는 한 글자를 뺀 것 같지만, 성(gender)평등으로 대체되면 가정의 해체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결합된 가정이 아닌 동성애와 동성결혼, 또 그들이 정하는 다양한 성과의 결합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소수의 인권만을 격상시켜 법제화하여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들을 막아서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올바른 인권이 정립되는 일에 우리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 한 단어를 바꾸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국가정체성을 흔들게 되는 일입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뀌어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사람에게 해당되게 된다면,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더 우려되는 망명권이 허용될 경우, 과격한 이슬람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국민의 안전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어 본대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나 강간 사건의 90%이상은 난민으로 유입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헌법개정안에 들어 있기에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세워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자신을 보고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세대를 위해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현 세대를 향해 우리는 하나되어 올바른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 남자와 여자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성 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옳은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개정반대 국민대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준비위원장 이수형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국민대회, 그 날 아침을 떠올린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 그날 아침을 떠올린다. 사회문화연구소에서 국민대회장 박상칠 목사님과 준비위원장 이수형목사님 모시고 대응 전략팀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오니 오늘 대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또 선포할 때 이 땅에 악을 행하며 이 나라를 삼키려 하는 사탄마귀 저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아침 10시였다.

오늘 이 부족한 나를 대회 대변인으로 세워 진행을 맡기신다. 언제 부터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나운서요 앵커입니다" 저를 그런 일에 써 주시기를 간구해왔다. 현장에 가서 미리 순서와 진행될 일을 그려보며 도청민원실 서류작성 데스크에 앉아 기도드렸다. 선포할 말씀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건강한 사회를위한국민연대를 섬기는 한 00 형제가 이끄는 젊은이들과 행사 전 공연팀 라과 난타단과 리오깃발 춤 팀이 도청 앞 대회장을 달구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성도들을 태운 버스들이 원주, 횡성, 화천, 양구 등 여러 지역에서 오는 버스들이 도착하고, 시간은 12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장내 준비를 하는 손길들이 분주해지고 특히 순복음춘천교회 교역자들이 음향장치 무대 셋팅 하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가을 하늘 공활 한데 높고 구름 없는 활짝 개인 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대회는 시작되었다. "외쳐라 대한민국!" opening moment는 이 아침에 선포하라 주신 말씀 이사야 22:22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는 말씀을 생각하며,

'국민여러분, 도민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오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이 애국자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한데 뭉쳐 분연히 일어납시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냅시다'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구호를 외치며 "온 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이 혼돈과 무질서의 어둠은 거짓은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행진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토론이 열리는 한림대 일송아트홀로 들어가 발언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과 인간존엄의 가치 국가안전보장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리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

춘천대회 개헌반대와 성시선교대회를 위한 9월 11-13일 그리고 14일과 15일의 기도회(기독교장로연합회, 홀리클럽 주관)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 대응전략기획팀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며...

글/ 하나님의 앵커 집사 최봉현
(춘천제일장로교회)

아리바 니뇨스! (일어나라 어린이들아!) 아리바 호베네스! (일어나라 청년들아!)





한민족디아스포라선교사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님

지난 9월 6일 거의 20년 만에 춘천 베드로선교센타를 방문하신 양창근 선교사님을 반가이 뵙고 디아스포라선교사로서의 사역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파라과이에서 33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양 선교사님의 사역은 크게 빈민선교, 어린이선교, 인디오선교로 나눌 수 있는데 해마다 춘천어린이전도협회의 '꽃 대잔치' 처럼 대대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여시고 있다.

베드로선교센타에서는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를 매주 한번씩 20년 이상 지속하였는데,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기도모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나갔었다. 그때 파라과이로 갔던 처녀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읽고 함께 기도했던 사역이 "아리바 니뇨스! 호베네스!" 전도집회였고 놀라운 어린이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기억이 새롭다.

선교사님의 사역가운데 파라과이 원주민인 인디오 추장들을 100여명 초청하여 일주일간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복음운동을 하시고 있는데 1200km나 떨어진 곳에서 3-4일 걸려서 모이는 추장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장학교' 를 지금까지 20회나 운영하셨다 한다.

1.5세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출발

양선교사님은 1977년 당시 19세의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남미 파라과이로 가시게 되었다. 평양사범을 졸업하신 장로님으로서 한국에서 오랜 세월 교편을 잡으셨던 아버님을 따라 이민을 가신 것인데 한창 한국에서 남미로 이민을 가는 붐이 있던 때라 아버님은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한글학교를 시작하시어 한때는 학생이 450명 까지 되었으며 지금도 파라과이에 사는 한국교민들은 한국말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다.

아순시온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전도사가 되어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이던 한인 청년들 18명과 함께 파라과이 한인인에베를 시작하셨고 담임목사님의 권고로 26살 때 아순시온장로교회라는 현지인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참으로 열정과 진심을 다하여 사역하였고 2년 6개월 만에 교회도 건축을 하였으며 나중에 보니 그때 함께 동역했던 한인청년들 18명 중 9명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가서 현지인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 감사하였다 하신다.

해외에 있는 한민족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이미 극복한 귀한 자원들로서 이들을 선교에 동원하자는 전략이 벌써 십여년 전부터 선교지도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처럼 현장에서 리더가 한민족디아스포라 다음세대에게 어떤 비전과 모델을 보여주며 함께 뛰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보내는 선교에서 세우는 선교'로

전 세계 181개국에 750만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몇 가정만 모이면 예배를 드리다가 본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하여 한인교회를 세운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대략 20-25%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기독교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에서는 2011년 제1회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7년 올해에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5회 횃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러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2000명이 참석하여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의 선교사로 242명이 헌신하여 기도를 받았으며 이제까지 1603명의 한민족디아스포라가 선교에 헌신하였다 한다.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본부에서는 '보내는 선교에서 세우는 선교' 라는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전세계 7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한국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그들을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의 선교사로 세우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울타리 역할이 필요하다

양선교사님은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들면서 세계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디아스포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다 하셨다. 본인은 아순시온한인장로교회의 모교회인 충현교회의 배려로 한국에 와서 총신대학 M.Div. 과정을 이수하고 또 한국교회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배우고 파송도 받았다 하신다. 그러나 한국의 IMF 사태 때 한국에서의 후원이 끊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또 파라과이만 하더라도 한인선교사 50가정 중 1.5세가 13가정이나 되는 등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한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많이 있다며 이들을 중보기도와 재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울타리 역할을 해 준다면 참으로 아름다고 효율적인 선교사역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다.

양창근 선교사님과 같이 현지에서 33년간이나 사역하시며 조국 교회의 울타리 역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시고 동시에 남미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한국에서 필요를 깨닫고 소명을 받아 시작된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본부가 연결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통역자인가 동역자인가?

양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들으면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지에 사는 한인디아스포라들을 단순한 통역자로 보기 보다는 잠재적인 사역자 나아가서는 동역자로 바라보면서 양육, 협력하여 점차 선교의 주체로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 한다.

필자도 3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 갔을 때 시내가 바라보이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역시 도시를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하러 올라온 일단의 러시아, 고려인 청년들을 만났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잘 양육하고 세워드린 고려인 2세, 3세 들이 개척한 꽤 큰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을 듣고 감사한 일이 있다. 또 어떤 고려인은 연해주에서도 경비행기를 타고 4시간이나 가야 하는 시베리아 깊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까지 하는 성공적인 디아스포라 선교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요즘 한국의 상황도 안팎으로 어려워지고 선교헌신자도 줄어드는 형편이지만 한민족을 짧은 기간에 750만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좇아, 주님 재림하시기 전 전무후무한 세계선교의 부흥에 한민족이 쓰임받는 복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기정희 선교사(베드로병원 원장)

신앙칼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글/ 김승범 목사 (춘천제일성결교회 담임목사)

전 세계로 흩어져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2017년 선교대회를 하기 위하여 한국 땅을 밟았다. 신학대학원 동기들 중엔 선교사들이 많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기 전 그리운 동기들과 이별 만남 시간을 다시 가졌다. 이제 곧 고국 땅을 떠나야 하는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가기 싫다" 였다.

군대 간 아들을 이곳에 두고 떠나야 하기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가 보다. 휴가를 나와도 부모 없이 딱히 머물 곳도 없게 된 아들 걱정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 자기가 아니면 보살펴줄 사람도 없어 치매 걸린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선교지로 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애써 감춘 슬픔이 있다. 그들의 입에선 연거푸 "가기 싫다"라고 가야만 하는 이들도, 보내야 하는 이들도 그저 가슴이 저리기만 하다. "기도해줘" "기도할게" 이 말 밖에는...우리가 무슨 힘이 있으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체찍질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고난의 잔을 앞두신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잔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다.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고뇌를 겪으셨던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고난의 잔은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다. 죽을 만큼 고뇌하고 피 땀 흘릴 만큼 힘들게 받아야만 하는 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선교도 사역도 사랑도 오래 참음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함도 좋아서 할 이가 있겠는가? 헌신이요 순종이기에 한다.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기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시

사랑할 수 있는 한

이칭찬
(춘소학술연구소 이사장,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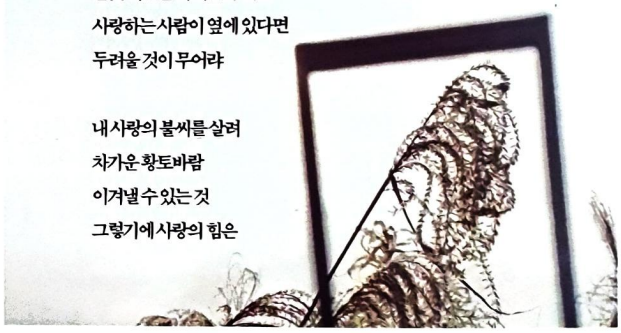
사랑은 모든 이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현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도
사랑할 수 있다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세월이 억겁을 지나며
온갖 시련을 가져온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무어랴

내 사랑의 불씨를 살려
차가운 황토바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
내 생명이 다하는 한
언제나 사랑하자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일도 없고
달콤한 것 쓴 것을
헤일 일도 없다.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
사랑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사랑하자.
모두의 위대한 삶을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자연유치원

원장 이관형(한길교회 권사)
24312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 033.241.5511, 5522



2017학년도 유치원 하반기 장학생 선발
자격: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혹은
전도사 자녀로 2012년생 3명 선착순

표어: 영혼구원에 불타는 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길교회



담임목사
최 정 식

원로장로 : 최영진 박동해 명영용 권오윤
명예장로 : 이 칭 박금자
시무장로 : 김승덕 이석빈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후평동)
T. 033-253-2333
F. 033-242-5544

하늘소망교회 설립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평안교회가 창립 제26주년기념 및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하늘소망교회(담임목사:노효철)를 분립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평안교회 담임목사 오생락 외 성도일동

일시 : 2017년 10월 15일(주일) 오후4시
장소 : 하늘소망교회(춘천시 퇴계동 631-3(남춘천역 건너편 GS편의점건물 5층)
문의 : 010-9433-1933(노효철목사)

주차 안내 (남춘천역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하늘평안교회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1-6 | Tel : 033)262-8534 Fax : 033)263-8538 | http://www.heavenpeace.org

잠깐!

68년 전에 쓰여진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 이 글은 68년 전에 쓰여진,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숭배자요 지도자였던 앨리스 베일리의 글을 요약한 내용이며, 월간『JESUS ARMY』(2014. 7)에 실렸던 글입니다.

▲ 앨리스 베일리(1880-1949)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숭배자들의 지도자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다. 앨리스 베일리가 68년 전에 주창한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날 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꼭 같음을 알 수 있다.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엘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 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1 교육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커리큘럼을 변경시켜서 기독교 문화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아동들은 인생을 직면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2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독교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아래는 앨리스 베일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첫째, 아동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둘째, 체벌을 폐지하라.

셋째,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3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의 억압은 견딜 수 없다.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만일 가정을 깨트린다면 국가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런 감금상태의 구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를 위해 앨리스 베일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첫째, 성 문란을 조장하라: 젊은 층들로 하여금 혼전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 하게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외정사에서조차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조장하라.

둘째, 광고 산업, 미디어-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섹스 하는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선전전략).

4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낙태 병원을 세워라.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훼방 받지 말아야 한다.

5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6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방식으로 만들라.

섹스 하는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그 즐기는 방법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연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獸姦)이든지 아무튼 쌍방이 합의하기만 하면 여하한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한다.

7 예술의 품격을 떨어트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은 안에 있는 그것을 회화, 음악, 드라마 등의 형태로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類)의 예술과 음악과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는 품격과 영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라.

8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대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를 이용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옥외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하라.

9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그리함으로써 기독교는 격하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인본주의).

10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 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수용하도록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을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러한 구조와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현실: 정부들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이 중 다수의 조항들을 법률로 만든 국가가 많다. 이러한 일은 다수의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한 가운데 슬금슬금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물 항아리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가 떠오르게 한다. 펄펄 끓는 물 항아리 속에 개구리를 넣는다면, 똑똑한 개구리는 끔찍한 위험을 즉시 감지하고 바로 물 밖 안전한 곳으로 뛰쳐나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물의 온도를 조금씩 매우 느리게 올린다면 개구리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몸이 서서히 익어서 죽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에 있던 자리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깨어있어 기도하자!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자! 다음세대를 지켜내자!

춘천기독교연합회 2017년 22차 정기총회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철 목사)에서는 22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을 사역과 재정을 결산하며,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임원에는 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 총무 이광우 목사(신촌장로교회), 서기 김용도 목사(푸른초장교회), 회계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감사 김원중 목사(우리장로교회), 김영래 장로(석사감리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 날에는 박상철 전임회장과 10여년 총무였던 오의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임 회장 신재원 목사는 "춘천의 400여 교회 연합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



춘천목회자연합회(손학균 목사)에서는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를 결산하며,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임원에는 회장 홍요셉 목사(예사랑침례교회), 부회장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총무 정덕현 목사(푸른초장침례교회), 서기 김용기 목사(푸른샘감리교회), 회계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감사 신성균 목사(열린순복음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 홍요셉 목사는 "은혜로 주어진 임기 동안 춘천목회자들을 잘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72주년 광복절 기념예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회장 손학균 목사) 주관으로 8월 13일(주일) 오후7시에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목사)에서 있었다. 춘목연 부회장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의 사회,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찬양팀의 경배로 예배를 시작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안창원 목사(우두감리교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김원중 목사(춘천장로교연합회장, 춘천우리교회),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를 위하여'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교회)의 기념사에 이어 춘천중앙감리교회 찬양대의 찬양과 손학균 목사(춘목연 회장, 석사감리교회)의 인사 및 강사소개 후, 강사이신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께서 '제사장 나라(출19:5-8)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강사이신 김기석 목사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셨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신음 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로 들으시기에 개입하시는 것이다"며 "기묵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심처럼 나의 왕관을 쓴 채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람을 진실하게 대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며, "해방 72년이지만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아직 해방이 안된 것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는 내 안의 장벽이 무너져야 분단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의 봉헌기도에 이어 정덕현 목사(춘목연 총무, 푸른초장교회)의 광고와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박상철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춘천 지역의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 위로회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손학균 목사)에서는 8월 17일(목) 정오에 쟈스민에서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부부 위로회 시간을 가졌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저녁7:15에 열리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병철 목사) 68차(8월 14일), 69차(9월 11일)가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68차 모임 강사는 김주한 목사(기아대책 북한사역협력부)였다.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역을 소개했다. 69차 모임 강사인 조시철 선교사(통일선교건국연구소)는 대한민국 건국역사를 통해 한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70차 춘천모임은 10월 9일(월)에 열리며, 임천국 선교사께서 강사로 초빙된다. 또한 화요통일기도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4시에 주향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통일광장기도회

매주 넷째 월요일 저녁8시에 열리고 있는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 목사)가 9월 25일(월)에 거성교회에서 열렸다. 이 날 강사인 이중인 목사(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사9:1-7" 본문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통일을 이루시리라. 통일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현실은 어두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선포했다.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적 평화통일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통일광장기도회에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2군단 포병여단 종교안보교육 실시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2군단 포병여단 종교안보교육 강사로 지난 9월 7일 3개 대대를 순회하면서, 각 대대 군인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병영생활 속의 자아정체성 형성)"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장병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있었는데 교육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 거행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는 2015,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을 섬기고 있다. 올해 8월 제511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은 기하성 교단(총회장 김서호 목사)과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여 최근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있었다. 2015년에는 침례예식을 통하여 훈련병 3,382명, 2016년에는 4,012명, 올해에는 2,878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동북아평화포럼



동북아평화포럼이 지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윤제선박사)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 한민족통일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중일 3개국에서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윤제선 박사는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지방자치단체로서 재래전은 물론 핵 전쟁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강원도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평화지대를 구축하고 그 수부도시인 춘천을 평화도시로 만들자는 선언이 이루어졌다.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는(춘천YMCA)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퇴계동 스무숲 솔바람공원에서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따뜻한 식사와 차 한 잔 나누며 고민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취재 · 사진 / 편집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본부장	부본부장
유진형 목사 안디옥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유동선 목사 춘천중앙성결교회	박인관 목사 광염감리교회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박상칠 목사 신성감리교회	이병철 목사 주향장로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국장**	**회계**	**감사**	**홀리클럽회장**	**홀리사무국장**
조영춘 목사 한아름선교회	최상도 목사 사암성결교회	이은정 권사 주향장로교회	홍순신 권사 평화동산교회	황병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김종열 장로 신성감리교회	김철수 장로 석사감리교회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손학균 목사 석사감리교회	이성신 목사 창대감리교회	안창원 목사 우두감리교회	임용웅 목사 춘천명성감리교회	최영조 목사 갈릴리교회	김종호 목사 효자감리교회	김창환 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김원중 목사 우리교회	김창성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김한호 목사 동부장로교회	조용아 목사 성광장로교회	지용찬 목사 은혜장로교회	정재호 목사 늘사랑교회	김선일 목사 소양성결교회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피종호 목사 나눔성결교회	이주호 목사 소양제일성결교회	신재원 목사 새춘천교회	오생락 목사 하늘평안교회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하기철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신성균 목사 열린순복음교회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오의석 목사 순복음조은교회	이상열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김수복 목사 거성침례교회	이지인 목사 춘천침례교회	홍요셉 목사 예사랑교회	정선문 목사 제자들교회
목회자 이사	**목회자 이사**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 목사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이봉석 목사 춘천구세군교회	성기문 장로 전 춘천법원장	이영길 선교사 우간다대학교학장	박민수 장로 전 춘천교대학장	윤재선 목사 산천무지개교회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전 시의장 김영일 집사 중앙감리교회	영광한의원 이용규 장로 석사감리교회	참사랑의원 정형만 장로 소양제일교회	매일관광 허봉 장로 중앙감리교회	우리소아과의원 이병일 장로 나눔성결교회	와이신협 임운식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앤투어여행사 김지현 집사 동부장로교회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평신도이사**			
디아펠리즈 남궁연 장로 중앙성결교회	강원농원 임희방 장로 동부장로교회	영서화물 강연술 장로 신성감리교회	쟈스민 박선남 집사 한제채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춘천장로교연합회 대부흥회 개최

일시: 10.29(주일)~11.1(수)까지 저녁7시
장소: 성광교회당(조용아 목사 시무)
강사: 박용규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소득신고 특별세미나
일시: 10.31(화) 오후2시 / 장소: 성광교회당(조용아 목사 시무)
강사: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춘천 55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일시: 10월14일 ~ 11월11일(5주)
매주 토요일 오후3시50분~저녁9시
장소: 주향교회(새청말길 5)
문의: 염노섭(010-3902-5883)

춘천 제1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모든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0월28일 ~ 11월 25일(5주)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3시30분
장소: 초대교회(영광한의원 4층)
문의: 김단옥(010-8959-0127)
전수진(010-6738-3217)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헐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4702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1단지시장입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춘천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일시 : 매주 월 오후 2시 - 5시
장소 : 나눔교회
문의 : 010.5521.3779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문의 : 010.6375.8874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문의 : 033.263.5455(입원상담)



참가대상 (자격) 강원지역 청소년 • 청년(강원지역 정통교단 소속 교회 청소년, 청년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참가곡 창작곡 및 기성곡(편곡 가능)

참가신청 **11/25(토) 오후6시** (참가비 5만원)

예선 2017년 12월 2일(토), 장소 및 시간 개별공지

심사 1차 : 녹음 파일 및 악보 심사 / 2차 : 예선(오디션) / 3차 : 본선 (10개팀 공연)

시상 총 본선진출 10팀, 기관장 상장과 장학금 시상 (각300~30만원 상당)

접수 신청서, 담임목사 추천서 및 악보, 녹음파일 이메일 접수(cjs3827@empas.com)
(신청서, 추천서 양식다운 : 다음카페 "제1회 강원지역 청소년청년 ccm경연대회"
http://cafe.daum.net/gangwonccmcontest)

문의 010-4325-1968, 010-4423-3827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순복음춘천교회
후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춘천시기독교연합회, 국민일보, 강원CBS, CTS영서방송, C채널, GOODTV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광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강민숙 강민찬 강석봉 강옥자 고순덕 곽혜옥 권경애 권여림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권현정 김경순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도희 김영희 김미경 김미라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신 김옥자 김용배 김용기 김은아 김은희 김일섭 김정미 김정숙 김정의 김종은 김종익 김종환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지 김현주 김현철 김혜란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하은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 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항 박덕남 박동화 박만규 박명관 박영선 박인수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소영 박순배 박영호 박옥화 박완영 박은경 박은혜 박정애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배진철 배한나 배향미 변종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현애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임순 송갑수 송경화 송영인 송항순 신달호 신동경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자 신온수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혜련 여경구 연승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흠금 오흠수 용영옥 원예슬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옥 윤정희 윤학병 윤흠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호 이영선 이영숙 이영순 이영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보람 이봉연 이상만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세희 이소영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운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은준 이지영 이진주 이충훈 이태우 이현석 이혜란 이혜란 이혜옥 임경혜 임덕수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영광 임인숙 임정이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장형성 전윤배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미선 정석호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중승 정진호 정치웅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민지 조성경 조소현 조진경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윤성 차재옥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명기 최미영 최선이 최승경 최영달 최영희 최옥순 최은영 최인숙 최짐자 최종인 최종호 탁광희 표복순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순덕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택기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성감리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항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참사랑내과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우리소아과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TALK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성시화운동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